



“불륜 부담?...되레 공감과 위로 땀쥔”

KBS 2TV ‘공항 가는 길’ 종영

김하늘 “나에게 딱 맞는 역할”

배우 김하늘(38·사진)은 멜로 영화 ‘바이 준’으로 데뷔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서른을 앞두고 출연한 MBC TV 드라마 ‘90일, 사랑한 시간’은 시청률은 낮았지만 적잖은 사람이 아직 기억하는 작품이다.

어느덧 마흔이 머지않은 나이가 된 김하늘은 최근 KBS 2TV 멜로드라마 ‘공항 가는 길’을 마무리 지었다.

“멜로는 배우에게 항상 욕심나는 장르예요. 20대 초반에 찍은 ‘피아노’(SBS TV·2001)도 그렇고, 매번 나이의 앞자리가 바뀔 때쯤 멜로 연기를 하니 좋아요. 특히 ‘공항 가는 길’은 제 나이, 제 감성과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SMT서울에서 만난 김하늘은 “인생에서 꼭 넘어야 하는 산을 넘은 것 같아 흥분한다”고 털어놓았다.

◇“드라마 메시지에 공감 ... ‘불륜’ 의식 않고 선택”= 김하늘은 그동안 멜로보다는 로맨틱 코미디에서 거둔 성적이 더 좋았다. 그 때문에 잔잔한 멜로인 ‘공항 가는 길’ 성격도 내심 우려스러웠던 건 사실이다.

또 지난봄 결혼한 배우에게 불륜은 부담스러울 법한 소재였다.

“관계를 통한 공감과 위로라는 드라마 메시지가 정말 와 닿아서, 작품을 선택할 때 불륜이라든가 이런 주변 요소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와 제작진 모두 최수아와 서도우의 감정선에 몰두했고,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보인 것 같아요.”

김하늘은 승무원 최수아가 직장 상사인 남편을 대할 때, 12살 딸을 대할 때, 자신을 흔들여 놓은 남자 서도우(이성운 분)를 대할 때, 가까운 친구 송미진(김



여진 분)을 대할 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연기로 보여줄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기존 여성인 최수아가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서도우를 선택한 것에 공감했느냐에 물었더니 김하늘은 오른쪽 귀를 살짝 잡으며 살짝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머리로 생각하면 다른 문제죠. 캐릭터라고 생각하니 100% 공감해 연기한 것이고, 저를 캐릭터에 대입시키지는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도 (최수아와) 많이 달라요.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부부가 상하관계로 있는 것 자체가…….” 그는 이성운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는 배우가 서

도우와 싱크로율이 맞았던 것 같다”면서 “(캐릭터와) 정말 맞는 사람이 연기해서 더 어우러진 것 같다”고 호평했다.

◇“내가 생각한 만큼 연기로 표현할 수 있었던 작품”= 영상미가 돋보인 ‘공항 가는 길’ 촬영은 그만큼 만만치 않았다.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들을 돌아다니느라 육체적으로 고단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편안했다는 게 김하늘의 설명이다.

명작 ‘봄날은 간다’의 이숙연 작가가 대본을 일찌감치 완성했기에 최수아를 더 일찍,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이 도움됐다. 연기 연륜이 쌓인 데다, 자기 나잇대와 맞는 역할을 한 영향도 컸다.

“90일, 사랑한 시간” 때만 해도 감독님(오종록 PD)이 이것저것 주문한 덕분에 제 역량보다 더 많은 부분을 끄집어내 보여드렸어요. ‘내게 저런 모습이, 저런 에너지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던 작품이죠. 이번 감독님(김철규 PD)은 그만큼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제가 생각한 만큼 연기로 표현할 수 있던 걸 알게 됐어요.”

김하늘은 “워킹맘이라는 캐릭터도 좋았다”면서 “주변 친구들이 모두 직장인인데 다들 환호하더라”라고 전했다.

김하늘은 모성에 연기도 무리 없이 해낸 데 대해 “아역 김환희의 도움이 컸다”면서 “효은이(김환희 역)를 뉴질랜드로 떠나보내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김환희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 회상했다.

김하늘은 캐릭터에 빠져드는 일의 중요성을 이번 제재로 실감했다고 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이 드라마에 서서히 젖어든 것 같아요. 자극적인 이야기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잔잔하면서도 힘이 있는 이야기를 시청자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박근혜 길라임’ 풍자

네티즌·연예계 유행

6년 전 방영된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주인공 ‘길라임’(사진)이 16일 연예계에서도 화제의 중심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 병원 이용 시 SBS TV 드라마 ‘시크릿 가든’(2010~2011)의 길라임(하지원 역)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인들은 너도 나도 길라임을 이용해 풍자했다.

가수 윤종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둘째 딸 사진을 올리면서 “내 딸 윤라임 분명, 2009년생”이라고 남겨 웃음을 자아냈다.

그를 2AM에서 활동하는 가수 정진운도 역시 인스타그램에 ‘시크릿 가든’ 남주인공 현빈 사진과 명대사 “그게 최선입니까?”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꾸준히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 온 MBC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상진은 노란 은행나무 가로수길 사진을 올리놓고서는 “길이 라임빛. 가을가 올해”라고 썼다.

당달아 주목받은 한류스타 하지원의 인스타그램에도 누리꾼 방문이 이어졌다. 팬들은 하지원이 2주 전 올린 게시물에 “제게



가수 윤종신 인스타그램

길라임은 당선뿐”, “어제오늘 놀랐겠지만, 괜찮다” 등의 응원 댓글을 남겼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시크릿 가든’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 잇따라 등장했다.

MBC 라디오 ‘굿모닝 FM 노홍철입니다’ 진행자 노홍철은 이날 “오늘 이 노래를 너무 듣고 싶었다”면서 김범수의 ‘나타나’를 선택했다.

전날 새벽에 방송된 MBC 라디오 ‘테이’의 꿈꾸는 라디오와 ‘박정아의 달빛 낙원’에서도 ‘시크릿 가든’ OST가 울려 퍼졌다.

길라임은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에서도 온종일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정경호·백진희, MBC ‘미씽나인’서 호흡

내년 초 수목극 방영예정

정경호와 백진희가 MBC TV 드라마 ‘미씽나인’의 남녀 주인공으로 발탁됐다고 흥보사 와이트리 컴퍼니가 최근 밝혔다.

내년 1월 수목극으로 방송 예정인 ‘미씽나인’은 스타들과 관계자 9명이 탄 비행기가 추락사고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정경호는 전세성을 갖춘 뮤지션이지만 생계형 연예인으로 전락한 서준오를, 백진희는 서준오의 신임 코디네이터 라봉희를 각각 연기한다.

흥보사는 “사건 2년 뒤 유일한 생존자로 발견된 라봉희의 증언을 통해 시작되는 이



정경호

백진희

아기는 추락사고의 진실과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쳐간다”고 설명했다.

올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38사기동대’, ‘질투의 화신’을 잇따라 성공시킨 SM C&C가 제작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창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30 영상앨범 산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불어라 미풍아 (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05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재)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재)	00 SBS 12 뉴스 5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남도의 보물 100선 (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별별가족 (재)		30 MBC스포츠 제10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20 나홀로 세계여행 2 55 닥터 365
2	00 TV쇼 진품명품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세상발견 유레카 (재) 55 닥터 365
3	00 시사기획 창 (재) 55 튜튼생활제조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나일은 연재나 무름	3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누가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30 특집 SBS 뉴스 이슈진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 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의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비타민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유네스코세계유산 8부작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00 드라마 스페셜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면역력의 열쇠, 인삼)	10 해피 투게더	10 오페라 라보엠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24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07:30 뽀뽀뽀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당동당 유치원 1~3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티키토!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 <위대한 연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동치미와 졸참깨두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콜랜드-한자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월스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끼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 15:45 코코코다코 16:15 두다다쿵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당동당 유치원1~3(재) 17:30 뽀뽀뽀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올라(Ola), 포르투갈 - 해양제국의 위대한 유산> 21:30 한국기행 <은비령로드-나만의 은비령>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인문학 비스킷 -산악인 겸 탐험가, 허영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마성의 수능 금지곡, 대처법은?>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다채로운 기회를 접하게 된다. 60년생 점점 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72년생 단번에 끝내려 한다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84년생 취향이란 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82, 05	午	42년생 전방위적인 분석을 요한다. 54년생 본의 아니게 타의 영향으로 변경될 것이다. 66년생 뜻이 있다면 앞뒤 재지 말고 기탄 없이 제기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78년생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알차냐의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24, 87
丑	49년생 확실한 유지하고 있어야만 활왕하게 된다. 61년생 즉흥적인 조치보다 정기적인 안목으로 대응 하자. 73년생 투망하지 않다면 문제점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85년생 간접적인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9, 02	未	43년생 하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낫다. 55년생 순발력 있는 대처가 절실한 때이다. 67년생 곧 시원스런 전적을 보이겠다. 79년생 생방간의 침예한 대립으로 불꽃 튀었다. 행운의 숫자 : 42, 03
寅	50년생 오늘의 복잡다단한 현상은 내일의 활성화를 상징하므로 먼 안목으로 보라. 62년생 후유증이 상당하겠다. 74년생 미진했던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라. 86년생 상호 간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면서 나가는 것이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68, 70	申	44년생 학수고대하며 버리던 것이 드디어 들어오는 성국이다. 56년생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기회이다. 68년생 특별한 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80년생 기대도 컸던 만큼 끝나고 나면 많은 미련을 남기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4, 27
卯	51년생 굳이 갈출 필요가 없으니 투망하게 일하라. 63년생 돌발적인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75년생 달은 없을 것이니 현태를 유지해도 된다. 87년생 입장이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행운의 숫자 : 53, 35	酉	45년생 목표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동반하고 있다. 57년생 마음은 있으나 현실 여건이 따라주지 못한다. 69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곤경에 빠진다. 81년생 방법을 달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행운의 숫자 : 28, 48
辰	40년생 불합리하다면 보정되어야겠다. 52년생 절제한다면 진행할 수 있느니라. 64년생 새로운 관세의 빛이 비춰오고 있느니라. 77년생 숭고하기를 해야 할 때다. 88년생 시련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38	戌	46년생 표만만 보아도 내용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58년생 앞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70년생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82년생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3, 90
巳	41년생 한 번 정한 약속은 꼭 지켜라. 53년생 흡족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65년생 묵묵히 나아가자. 77년생 당면한 현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자. 89년생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3, 76	亥	47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9년생 고질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71년생 바쁘게 뛰는 만큼 초자의 결실이 따르다. 83년생 작은 일에 매달리다 보면 큰일에 자질이 벗어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6, 4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